

20121226 vol.94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중국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동향
- III. 중국의 對韓투자 동향 및 정부의 대응
- IV. 전라북도의 중국기업유치의 현실과 과제
- V. 중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

김미희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 2012년 12월 26일 vol.94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발행인 : 김경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궤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 : 063)280-7100 FAX : 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 (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 O N T E N T S

중국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I. 문제의 제기	4
II.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동향	5
III. 중국의 對韓투자 동향 및 정부의 대응.....	7
IV. 전라북도의 중국기업유치의 현실과 과제	11
V. 중국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12

| 요약 |

중국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대응방안

○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중국 12·5계획 내용 중)

- 우수 해외기업과의 합작 권장
- FTA의 우대정책과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추진
-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조업, 첨단기술, 신에너지 등의 해외투자 적극 추진
- 중국경제특구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경제무역합작구' 설립 권장

○ 중국의 對韓투자 현황

- 對韓직접투자 6.5억 달러(2011년 신고액 기준, 전년 대비 57% 증가)
- 중국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중국의 對韓투자 중 對전북 투자는 전국대비 1.1%에 불과(2011년 기준)

○ 최근 중국의 對韓투자 특징 및 동향

- 한국의 FTA 네트워크 활용가능성을 이유로 대한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중
- 독자투자 보다 합자 혹은 합작투자 형식 선호
-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포장산업, 기타 원재료 및 부품 산업 위주 투자
- 산동성, 절강성, 강소성 등 한국과 인접한 동부연안지역의 대한투자 활발
- 투자동기는 선진기술습득형과 FTA활용형이 주를 이룸. 특히 FTA활용형은 고부가가치산업 제조기업의 해외진출 장려 추세와 미국-EU의 반덤핑관세 판정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정책제언1 : 중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타겟팅

- 중점 타겟산업*: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운수설비, LED, 일반기계, 농기계산업, 태양광산업 등
- 중점 타겟지역**: 절강성, 강소성, 산동성, 북경시, 천진시 순
- *對韓투자 장려 업종, 반덤핑관세판정을 받은 산업, 전북 전략산업군을 종합 분석한 결과
- **대한투자활발지역,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 주도 지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 정책제언2 : 새만금산업단지 내 “중국기업 특화 전용단지”* 조성

- (필요성)새만금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앵커사업 필요
- 해외진출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 필요
- 한국의 FTA네트워크 활용 및 선진기술습득을 위한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수요 적극 대응
- 중국정부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 건설 전략 적극 활용
- * 지경부의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방안(2012년 8월) 중 필요시 중국기업전용공단 조성 검토 가능하다 명시

1. 문제의 제기

- 중국의 WTO 가입과 정부의 해외 직접투자 장려정책으로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2010년 말 중국은 세계 5대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부상
 - 중국 12·5계획은 해외직접투자 목표치를 연 평균 35%로 상정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반면,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중국기업의 對전북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
 - 자원개발, 선진기술습득, 시장개척 등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목적과 한국의 여건이 서로 상치됨으로써 對韓투자가 매우 저조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전라북도 역시 비슷한 상황임
- 우리나라는 중국기업의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임
 - 소위 쌍용자동차 ‘떡튀’ 등으로 인해 조성된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와 중국기업 유치를 위한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부족이 주요한 원인
- 더욱이, 중국은 해외직접투자 역사가 비교적 짧고 폐쇄적인 구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적인 동향파악이 매우 어려운 편
 -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은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정부 주도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고 중국이 이를 이용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새만금개발을 조기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소요재원의 마련이 향후 정부와 전라북도의 공동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는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중국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 특화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II.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및 현황

1.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 최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기존의 투자유치 중심에서 벗어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모두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정책은 2002년 10·5계획기간 중 기본적인 골격과 방향이 수립되었고 11·5, 12·5 계획을 통하여 수정·보완되고 있음
- 12·5계획 기간중 해외직접투자를 연 평균 35%로 상향조정하고, 우수 해외기업과의 협력을 권장하는 등 '두 개의 시장, 두 가지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FTA의 우대정책과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추진,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조업·첨단기술·신에너지 등 분야의 해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중국경제특구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 '경제무역합작구' 설립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액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의 간소화, 기간단축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있음

※ 중국 해외경제무역합작구

A. 정의

- 중국내 과잉생산해소와 반덤핑무역마찰을 회피하고 중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한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 1~2개의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20~30여개의 중소기업이 동반진출

B.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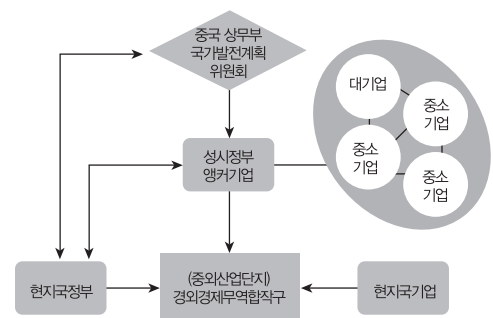
- 15개 국가에 19개 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 건설중, 향후 약 50개까지 확대 계획
- 무안의 한중산업단지는 중국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중 하나였음

C. 특징

- 중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출이 모색되고 있음
- 에너지, 자원, 건축, 농업, 경공업, 제련, 전자 등 제조업 위주 투자
- 건설규모는 1억 달러 이상
- 앵커기업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자금지원(2~3억 위안)과 저리중장기대출(20억 위안) 지원
- '해외합작구'를 주도하는 앵커기업은 주로 GRDP가 높은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에 주로 소재하며, 그 외 복경, 천진, 광둥성에 본사 소재

D. 설립방식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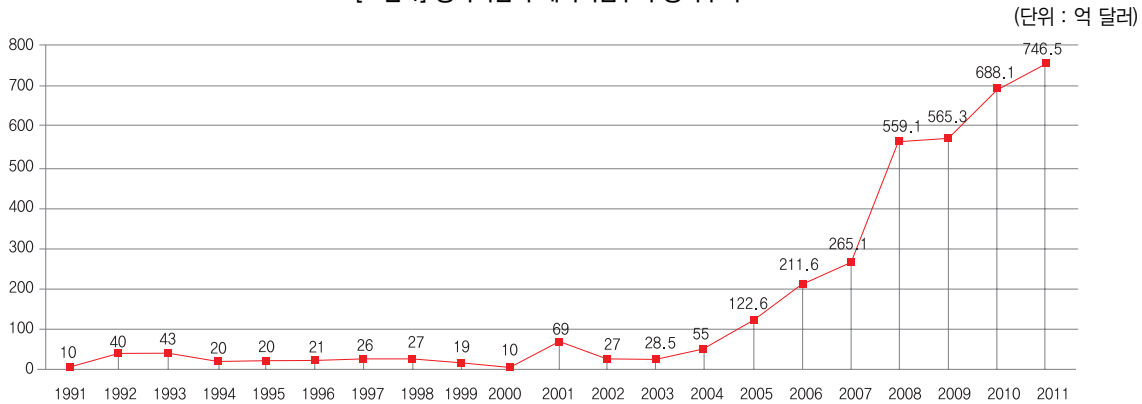
- 개별기업 주도, 다수기업 공동 추진, 중국기업과 현지국 기업의 공동추진 등 다양한 형태
- '해외합작구'의 설립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편



2. 중국의 對세계 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 과거 중국은 매우 미약한 규모로 해외투자를 추진하였으나, 2002년 해외직접투자 장려책인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2002년~2011년 누적 해외직접투자액은 3,918.6억 달러에 달함
 - 27억달러(2002년), 265.1억달러(2007년), 559.1억달러(2008년), 746.5억 달러(2011년)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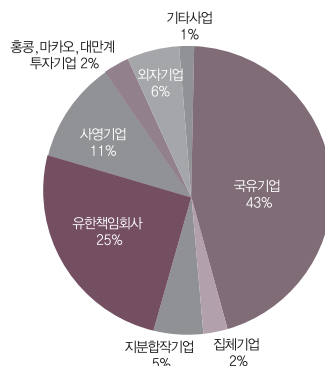


*자료 :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中國商務部; 『2011年中國國際收支報告』, 國家外匯管理局國際收支分析小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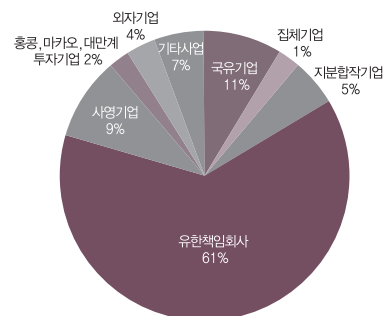
- 중국기업의 주요한 해외직접투자 목적은 선진기술과 글로벌 브랜드 확보, 새로운 시장 확보, 통상마찰 최소화와 무역장벽회피로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부합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 과도한 외환보유고 해소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완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정치·경제적 영향력제고 등 여타 국가와 달리 국가차원의 정책적 목적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유한책임회사 등 민영기업이 해외직접투자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음
 - 한편, 자원개발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투자형태를 보면 그린필드 투자 방식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지식·조직 등 자산을 조기에 획득할 수 있는 M&A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경향임
 - M&A투자의 최근 동향은 100% 인수 합병 보다는 부분적 M&A, 합작(JV) 투자에 대한 인식 확산되고 있음
 - 고급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 증가추세

[그림 2] 기업형태 별 해외직접투자('03년)



[그림 3] 기업형태 별 해외직접투자('10년)



- 이러한 원인의 배경에는 중국은 대외 개방역사가 일천하고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 대한 투자정보가 비교적 어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그린필드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6년 중국 상무부는 '해외경제무역합작구' 건설 전략을 발표하고 기업군의 해외동반 진출을 장려하여 개별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있음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같은 민족의 뿌리를 둔 홍콩, 싱가포르 등 화교경제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홍콩(2003년~2010년, 58.3%)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륙별 투자를 보면, 선진국, 아프리카, 동남아국가에 대한 직접투자가 각각 10.2%, 4.1%, 88.1%
 -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선진기술 습득, 자원개발, 조세피난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낮고 3차산업(70%)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으며, 특히 무역과 관련있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비즈니스 서비스업, 금융업 17.4%, 채광업 14.1%, 도소매업 13.2%, 교통운수 7.3%이고, 제조업은 5.6%에 불과함

III.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현황 및 정부의 대응

1.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정책

- 과거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인수합병 등 일련의 투자 실패사례로 인해 중국은 對韓직접투자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입장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최근 한국이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 FTA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국가주도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에 따라 각 국가별 투자지침을 마련하고 국가별 투자장려업종을 제시하고 있음
 - 對韓투자 장려업종은 자동차와 같은 교통운수설비, 화공원료, 통신설비, 기타 전자설비 등의 제조업과 무역, 소매업, R&D, 건축서비스, 교통운수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상무부, 2004년)
 - 반도체, 모니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정보통신산업, 의학산업, 일반기계산업, 부품/원자재 산업, 항공산업, 관광레저산업, 정밀화학산업, 물류산업 권장(상무부, 2011년)

[표 1] 중국의 對韓투자 장려업종

구분	對韓투자 장려업종
《해외투자국별 산업지도목록》(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자동차 등 교통운수설비, 화공원료, 통신설비, 기타 전자설비 • 서비스업 : 무역, 소매업, R&D, 건축서비스, 교통운수서비스 등
국가별 해외직접투자지침(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모니터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정보통신산업, 의학산업, 일반기계산업, 부품/원자재 산업, 항공산업, 관광레저산업, 정밀화학산업, 물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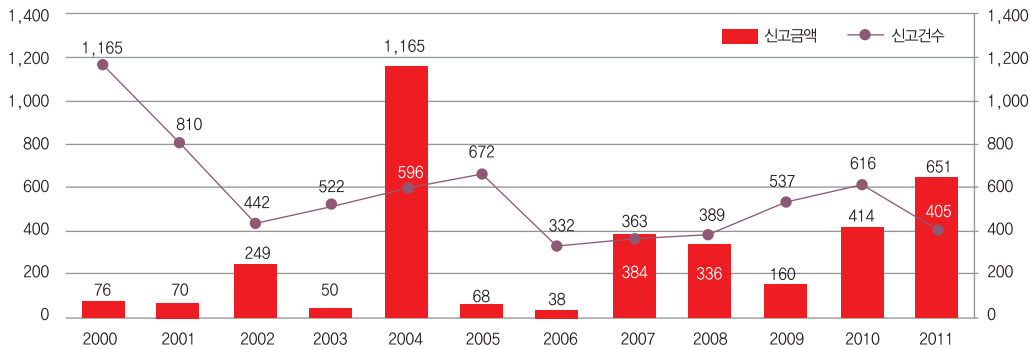
- 또한,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적은 중국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쌓인 노하우를 활용하여 중국정부는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단독투자보다는 합자 혹은 합작형식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아울러, 경영관리의 현지화를 장려하고 있으며, 투자지로써 해외투자기업 전용단지 · 자유무역지역 · 경제자유지역 등을 권장

2. 중국기업의 對韓직접투자 현황

- 중국의 對韓투자는 2002년, 2007년 등 중국의 대형對韓투자가 이루어져 중국자본 유입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상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음
 - 2011년 기준,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신고액 6.5억 달러, 신고건수 405건, 중국투자액은 총 유입 외국인투자총액의 4.8%, 총 신고건수의 15% 차지

[그림 4] 중국기업의 對韓투자 추이 (2000년~2011년)

(단위 : 억 달러)



* 자료: 지식경제부

- 중국의 對韓 직접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 투자의 건당 평균 투자액이 53만 3천달러로 규모가 매우 작은 편
- 제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對韓직접투자는 주로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포장산업, 기타 원재료 및 부품 산업 등에 분포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對韓투자 장려업종과 비교적 일치하고 있고,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에 있어 정부의 지침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중국의 對韓서비스업투자는 한·중 무역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며 중국기업의 對韓수출업무 지원 역할의 무역업과 도소매유통 부문과 물류 관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중국기업의 산업별 對韓 투자 현황(한국통계, 2000~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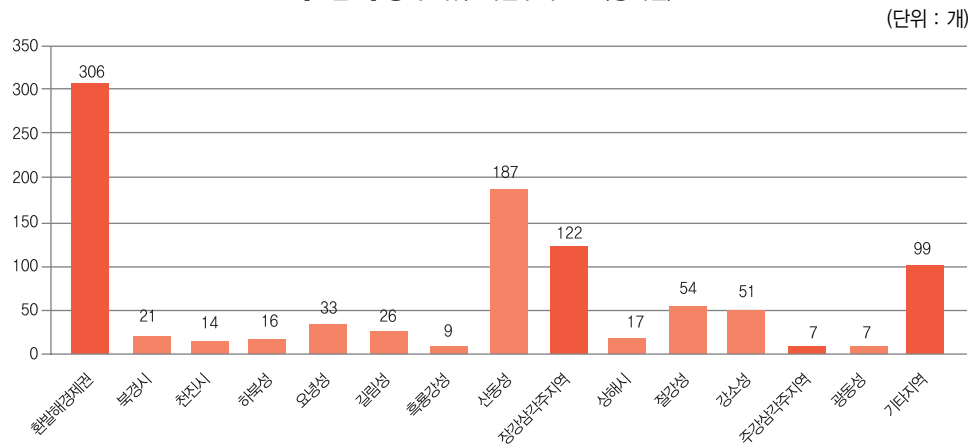
(단위 : 건, 만 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건당 투자규모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전체	6,849	100.0	366,104	100.0	53.5
농·축·수산·광업	69	1.0	6,285	1.7	91.1
제조업	575	8.4	191,340	52.3	332.8
서비스업	6,144	89.7	167,652	45.8	27.3
전기·가스·수도·건설	61	0.9	828	0.2	13.6

* 자료: 지식경제부

- 중국의 對韓직접투자 지역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라남도, 제주도 순이며, 건수별로 보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경기도와 인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우위가 큰 장점으로 작용, 특히 인천시는 송도·청라 등 대형개발사업의 기회가 투자유치의 메리트로 작용
 - 서울은 투자건수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로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편
 - 최근 중국기업의 부동산업, 유통업, 관광업, 숙박업 등 제주도에 대한 직접투자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對韓투자는 내륙 또는 서부지역에 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부연안지역 省市에 집중되어 있음
 - 환발해경제권이 60%, 장강삼각주지역이 27%의 비율을 차지
 - 산동성, 절강성, 강소성이 각각 36.8%, 14.9%, 9.1%으로 활발

[그림 5] 중국 對韓 직접투자 분포(성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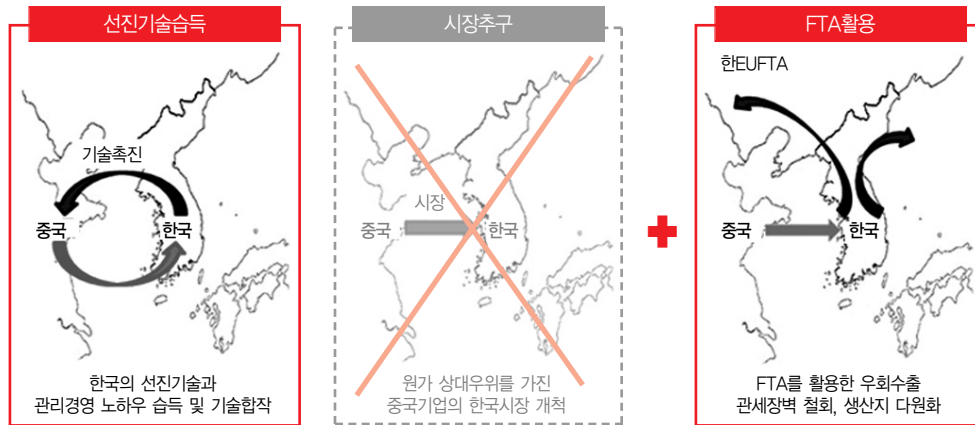
*자료 : 中國境外投资企业(机构)名录, 중국 상무부, 2011

3. 중국기업의 對韓직접투자 유형의 변화와 대응

- 과거 한국에 기 투자했던 중국기업은 주로 선진기술습득과 시장추구라는 목적으로 對韓투자를 추진하였음
- 선진기술 습득형은 중국기업이 한국 내에서 자사의 시장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향후 동 산업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로 자동차, LCD, IT, 반도체 등 산업에 집중
 - 대표적인 예로 징동팡의 하이닉스인수,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인수, 상하이성따의 액토즈소프트 인수, 입중 그룹의 에코알록스 투자 등
- 시장추구형 투자는 원가상대우위를 가진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감소 추세임
 - 시장추구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제조업의 對韓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은 무역 등 주로 서비스업에 한정

- 반면, 중국은 최근 한국이 체결한 외국과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세감면을 통한 수출원가절감 및 비관세장벽 회피를 위하여 한국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그림 6] 중국기업의 對韓 투자유형변화 전망



- 특히, 최근 지경부는 對중국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국기업의 주요한 對韓투자동기인 ‘선진기술 습득’을 활용하여 “Made with China” 전략을 채택하고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JV를 추진중임
 - “Made with China” 전략이란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 및 중국유통망이 없는 한국 중소기업과 자본은 있으나 선진기술과 글로벌 경영노하우가 없는 중국기업을 서로 연결하여 對韓투자를 촉진하고 아울러 다시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 중국자본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인 IT·벤처기업, 프랜차이즈, 자동차부품 등을 중점 유치 분야로 정함
- 사실, 이처럼 우리가 중국기업을 유치하려는 근본 목적은 자본유치와 생산공장의 국내 신설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및 지역의 확대재생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중국기업 유치의 최종 목표를 중국시장진출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선순환구조에 중점을 두어야함
 - ① 선진기술을 습득을 요하면서 자본력 있는 중국기업 유치
 - ② 자본, 선진기술력, 해외마케팅능력을 갖춘 한중합작기업 집중 육성
 - ③ 한·중합작기업은 중국측의 판매유통망을 활용하여 중국시장에 재진출하고, 한국의 FTA네트워크와 한국측의 해외마케팅능력을 활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

[그림 7] 중국기업유치의 선순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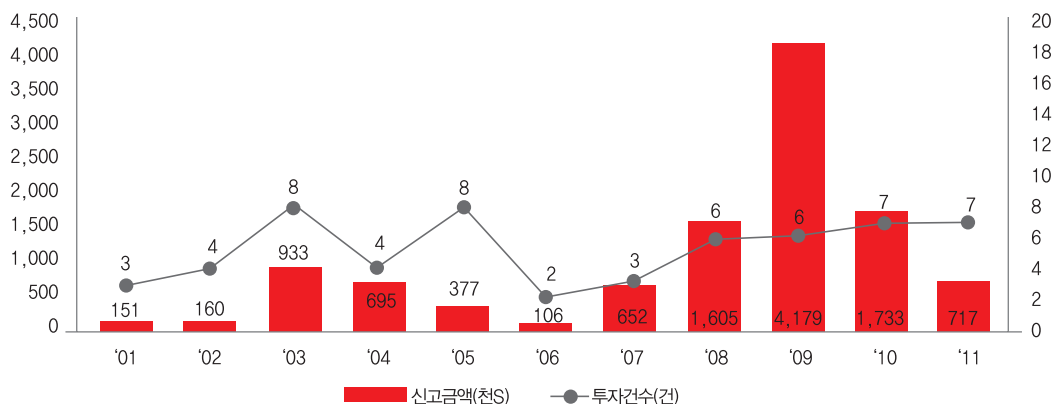


- 이를 통하여 중국 측은 한국의 선진기술과 경영관리기법을 습득을 통해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가치 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한국 측은 중국자본의 공급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음
- 지경부는 이를 위하여, 2013년까지 중국자본 유치를 희망하는 100개 국내기업을 발굴하고, 중국 투자촉진국과의 협력채널을 활용하여 중국투자가 또는 중국기업을 발굴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개최할 계획임

IV. 중국기업 對전북 투자의 현실과 과제

- 타 지역이 부분적으로 대중국 투자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성과는 여전히 매우 미미한 편
 - 2000년~2011년 중국의 對전북투자 건수는 58건, 누계액 11,308천 달러, 건당 투자규모는 195천 달러이며, 2011년 기준 전국대비 1.1%에 불과
 - 전라북도는 2009년 4,179천 달러로 가장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매우 미미한 수준

[그림 8] 중국기업 對전북투자 추이 (2000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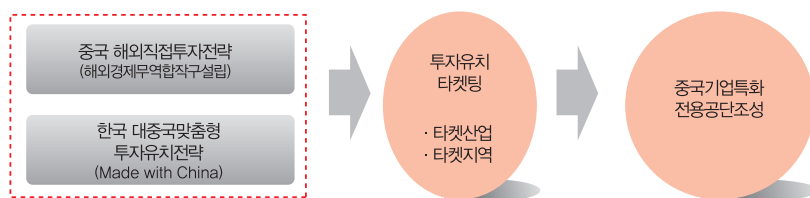


- 더욱이 중국기업의 對 전북 직접투자는 무역업과 도소매업 등 주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규모가 비교적 작은 편
 - 2000년~2011년 전체 58건의 對 전북투자 가운데 34건이 도소매, 음식숙박업, 식품 등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규모 역시 매우 영세한 편
 -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9건으로 주로 화공과 운송용기계업 중심 투자
- 전라북도는 중국과의 접근성, 새만금개발사업의 미래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對韓투자 장려업종인 자동차부품과 조선산업, 신재생에너지가 비교적 발달하였다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투자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중국기업 유치 성과가 이렇게 부진한 원인은 중국자본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인 인식과 새만금이 한중간 경제협력의 최적지라는 공론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세계 제일의 외환보유국이기에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와 아직 글로벌경제 체제하의 운용마인드가 부족한 국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
- 전라북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적극 개발하고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장려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함

V. 중국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 투자유치는 민간영역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국은 여타 국가와 달리 정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매우 크며, 이러한 중국을 상대로 전라북도는 정부차원의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을 필요로 함
- 우선 전라북도에 특화하여 유치할 대상선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전략 중 하나인 해외경제무역 합작구 설립과 최근 한국정부가 중국맞춤형투자유치를 위한 Made with China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따라서, 아래와 같이 對중국 투자유치 대상 산업과 지역을 설정하고 전라북도에 특화된 기업유치를 위한 방안을 제안함

[그림 9] 중국자본 및 기업유치를 위한 전라북도의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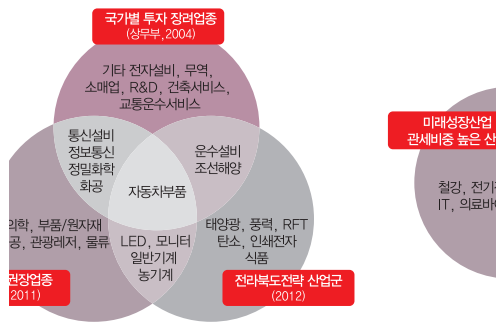
1. 중점 투자유치 산업 타겟팅

(1순위)자동차부품, 태양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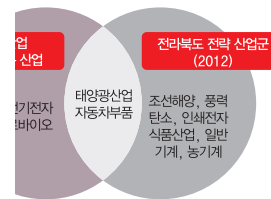
(2순위)조선해양, 운수설비, LED, 일반기계, 농기계산업 등

-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정책'을 활용한 투자유치 타겟팅 방법을 활용, 투자유치 타겟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운수설비, LED, 일반기계, 농기계산업으로 함
-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유치 타겟팅 방법을 활용, 투자유치 타겟산업으로 최근 미국과 EU에 의해 반덤핑 관세관정을 받은 자동차부품, 태양광산업으로 함
 -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전지와 모듈상품 등에 대해 최고 249.96%의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2012년)
 - EU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부과 예비관정
 - 중국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EU와 단기간에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의 FTA네트워크 활용을 위해 對韓투자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그림 10] 저우추취전략을 활용한 타겟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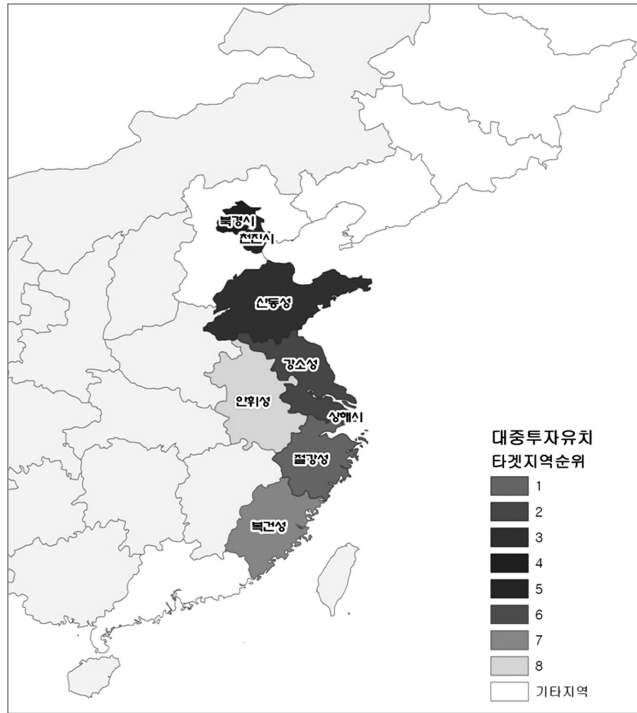
[그림 11] FTA를 활용한 타겟산업



2. 중점 투자유치 지역 타겟팅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천진시 우선 순

- 중국 성시의 對韓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중국 동부연안지역의 對韓투자가 내륙 또는 서부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 특히 산둥성, 절강성, 강소성 등 전라북도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황해연안지역에 집중됨
- 해외경제무역협작구를 주도하고 있는 앵커기업의 소재지를 보면 중국내 GRDP가 높은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외 북경, 천진, 광둥성에 소재
- KOTRA의 중국 성시별 對韓직접투자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보면, 강소성, 산둥성, 절강성, 상해시, 천진시, 북경시, 복건성, 안휘성이 對韓투자의 가능성이 비교적 큰 지역으로 꼽고 있음
- 이들을 종합 분석할 때, 절강성,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천진시 등이 우선 투자유치 대상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표 3] 전라북도의 전략적 對中투자유치 타겟지역

省/市	對韓 투자가능 여부	對韓투자장려 산업에 근거한 집중 산업
절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사례 비교적 많은 발전된 지역 • 제조분야가 비교적 발달하여 한국 투자 가능성 있음 • 원자재의 투자자들은 해외직접투자에 적극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비 • 운수장비, 일반장비
강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사례 비교적 많은 발전된 지역 • 고급 제조분야가 비교적 우수하여 한국투자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비 • 화학원자재, 화학제품 • 전기기계 및 장비
산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인접한 발전된 지역으로 해외직접투자 사례가 많음 • 화학제품 및 기계 제조산업이 우수하여 한국 투자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원자재, 화학 제품 • 일반기계, 전기기계 및 장비
북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대형 SOE와 금융기관의 본사를 보유한 발전지역으로 대부분의 해외 직접투자의 발원지임 • 현대 제조분야가 우수하여 한국투자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 운수장비 • 전자장비
천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장비, 전자장비 등 현대 제조산업으로 비교적 발전된 지역으로 한국투자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장비 • 전자장비
상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경험이 많은 고도로 발전된 지역 • 현대 제조산업의 해외직접투자 가능성 있음 • ※부동산개발업의 對韓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비 • 운수장비 • 일반기계
북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해외직접투자 경험 풍부함 • 우수한 전자제품 제조업 보유하여 한국투자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장비 • 컴퓨터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안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 및 장비, 운수장비 제조산업 우수하여 한국투자 가능성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 및 장비 • 운수장비

3. 중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중국기업 특화 전용공단” 조성

- 전라북도는 새만금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앵커사업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FTA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 기업의 對韓투자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 해외진출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이 필요, 그 중 중국기업에 특화된 전용단지 조성은 중국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임
- 개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선진기술습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국 해외경제무역합작구(기업군의 해외 동반진출) 전략을 심분 활용
 - 중국기업 특화 전용공단은 중국정부의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전략과 부합하는 조치
 - 지정부의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방안(2012년 8월)에서 필요시 중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
 - 산업연구원은 새만금경자구역의 차별화 발전전략으로 중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며, 2공구와 5공구가 인근 군산2국가산단과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 후보지로 검토 필요
- 이외에도 정부와 전라북도는 한중 정부간 협력과 민간의 협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對중국투자유치 중점산업과 중점지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함
- 특히,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른 본격적인 새만금개발을 앞두고 정부는 ‘새만금의 對중국 전진기지’로서의 기능을 적극 부여해야하며 전라북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슈브리핑
Issue Briefing



전북발전연구원

560-86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효자동3가 1052-1)

Tel.063-280-7100 Fax.063-286-9206

www.jthink.kr